

우수선수 육성·체육시설 개방... 건강도시 기반 구축

2023 광주시체육회 결산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실시
학교 체육 시설의 전면 개방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업 추진

광주시체육회는 2023년 한해를 ‘시민 모두가 스포츠를 즐기는 기회 도시 광주’라는 비전 아래 우수선수 육성과 체육시설물 개방 등 시민과 선수들에 더 나은 스포츠 서비스 제공에 주력, 광주체육이 스포츠 건강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시민건강 증진 최우선 추진

광주시체육회는 올해 전국 17개 시·도 최초로 광주 5개 구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83명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호봉제를 시행하고 급식비도 인상했다. 단일임금제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열악한 처우를 받아왔던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호봉제 도입은 학교, 체육시설 등에서 체육활동을 지도하고 시민건강을 책임지는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돼 생활체육 서비스 질이 향상됐다는 평을 받았다.

시체육회는 생활체육광장, 시민1인1종목갯기운동, 해달맞이 생활체육 교실, 공공스포츠클럽, 청소년 클럽대항 등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업도 추진해 언제 어디서나 스포츠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1월 제35회 광주시민체육대회에서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화합을 도모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 넣었다. 이 대회는 장애물 계주, 탱크바퀴돌리기 등 5개 종목의 구별 화합 경기와 테니스, 탁구, 에어로빅 합합 등 3개 종목별 경기로 진행됐고 1500여 명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여해 실력을 뽐냈다.

●학교체육시설 전면 개방

시체육회는 부족한 체육시설에 대한 시



‘제35회 광주시민체육대회’가 지난 11월11일 광주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가운데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개회식 식전행사인 조선대 태권도 시범단의 시연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전남일보 자료사진

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광주시교육청과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49개 학교 강당과 207개 학교 운동장이 시민에게 개방돼 광주지역 초·중·고 체육관 및 운동장 개방율이 97.7%에 달하고 있다. 체육시설 개방으로 시민들의 체육활동이 활발해져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도 힘을 썼다. 109억2700만원을 투입해 염주종합체육관 시설 개선공사 등 13건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광주월드컵경기장 보수작업도 진행 중이다. 좁은 관람석을 현대인의 체형에 맞는 넓은 관람석으로 2만427석을 교체했고 천장 및 지붕 방조광 볼트를 재설치했다. 화장실 개보수, 냉난방기 교체, 경기장 외부 방수, 경기장 트랙공사도 진행, 2024년 4월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각종 국내외 대회 우수 성적 거양

지난 10월 전남 일원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광주선수단은 48개 종

목 1415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149개 메달과 3만2591점을 획득, 종합 11위를 차지했다. 3회 연속 3만점대 득점과 경쟁시도를 제치고 11위를 달성하며 광주체육의 위상을 높였다.

체조 문건영(광주체고 2)은 전국체육대회 104년 역사 최초 7관왕의 대기록을 작성했고 육상 여제 정혜림(광주시청)은 100m허들에서 대회 개인 8연패(광주시청 소속 6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육상 4관왕 고승환(광주시청) 등 13명의 다관왕을 배출했고 조정 여자18세이하부에 출전한 김승현(2)·김정민(2)·서예서(2)·김지선(1) 등 광주체고 선수들은 전원 2관왕이라는 기업을 토했다.

지난 10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에서 광주 태극전사들의 활약도 빛났다.

근대5종 전용태(광주시청)가 2관왕에 올랐다. 양궁 안산(광주여대 4)이 단체전 금메달과 개인전 은메달, 최미선(광주은행)은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다. 펜싱 강영미(광주서구청)는 단체전 금메달, 다이빙 이재경(광주시체육회)이 은메달

2개·동메달 1개를, 다이빙 박하름(광주시체육회)이 동메달을 각각 목에 걸었다. 여자핸드볼 강경민·송혜수·박조은(광주도시공사)은 은메달 획득에 기여했다. 육상 김국영·고승환(이상 광주시청)은 남자 400m 계주에서 한국타이거로써 37년만에 동메달을 함작, 광주를 세계에 알렸다.

●각종 공모사업 선정·외부감사관 위촉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모한 각종 국비 사업에 선정돼 지역민들의 생활체육진흥에도 기여했다. ‘야외 레저스포츠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9600만원을 지원받아 ‘제1회 광주시체육회장배 전국 민물낚시대회’를 개최했다. ‘도바기 체육돌봄 사업’, ‘지정스포츠클럽’,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지원사업’ 등에 선정돼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고른 발전을 추진했다.

민선 2기 사무처 조직 쇄신과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외부 감사관 제도를 도입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체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무처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선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기존의 관행적 업무처리 방식을 탈피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스포츠 유전자 지원사업 추진

광주시체육회는 전국 최초로 체육중심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스포츠 유전자(DNA) 지원사업도 추진,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꾀했다.

광주스포츠과학연구원의 주도로 지난 3월 광주체육중 전체 신입생(17개 종목 87명)을 대상으로 스포츠 유전자 검체 채취·분석을 통한 스포츠과학 지원 고도화에 나섰고 스포츠 영재발굴 및 개인별·종목별 전문훈련 등 선수들의 과학적 전문훈련을 통한 경기력 향상에 기여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시민들의 건강과 선수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동반자 역할을 하며 광주시와 함께 스포츠로 행복하고 재미있는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



광주시장애인체육회-광기술원·장애인고용공단 협약

광주시장애인체육회가 한국광기술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체육선수 취업을 위해 손을 잡았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26일 광주시장 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한국광기술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와 ‘장애인스포츠 선수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은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선수 2명을 한국광기술원 소속 선수로 채용 추진해 장애인 선수 취업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

한상득 수석부회장, 한국광기술원 신용진 원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홍성훈 본부장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장애인스포츠 선수 취업 관리체계 구축 △장애인스포츠 선수 채용 추진 △상호 주최·주관 사업 초청 및 행사 교류를 통한 협력기반 조성 등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광기술원은 내년 1월10일 중증 장애인 스포츠선수 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1월2일 까지 장애인 전문체육선수를 대상으로 공개 채용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1월5일 면접 시험이 예정돼 있다. 최동환 기자

광주FC, 내년 완벽한 ‘전용 연습구장’ 갖는다

전용구장·축구센터 위수탁



창단 후 첫 아시아 무대 진출에 성공하며 돌풍을 일으킨 광주FC가 이정호 감독의 숙원이던 ‘성장할 수 있는 훈련 여건’을 갖출 전망이다. 그동안 광주시체육회가 관리 주체였던 광주축구전용구장과 광주축구센터를 새해부터 구단이 직접 위수탁을 맡는다.

26일 광주 구단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부터 전용구장과 축구센터 위수탁을 구단이 직접 맡는다. 광주 구단은 1월1일자로 전용구장과 축구센터의 관리 주체가 되며 이에 대한 협의 절차를 광주시, 광주시체육회와 진행하고 있다. 위수탁 기간은 2년이며 추후 연장이 가능한 조건이다.

전용구장과 축구센터에 대한 위수탁 관리권 확보는 광주 구단의 숙원이었다. 축구센터의 경우 지난 2018년 1월 ‘광주FC 전용 연습구장’이라는 가칭으로 착공해 위수탁을 구단이 맡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시민 개방을 이유로 광주시체육회가 운영



광주FC와 인천유나이티드의 하나원큐 K리그1 2023 35라운드 경기가 지난달 28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가운데 광주FC 팬들이 열띤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나현호 기자

권을 가져갔다. 명칭은 공모를 통해 광주FC가 빠진 광주축구센터로 결정됐다.

광주FC가 전용구장과 축구센터 위수탁을 직접 맡으면서 선수단 훈련 여건 개선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기 출전 조와 미출전조를 분리하고, 훈련 시간을 오전과 오후, 야간으로 나누는 등 원활한 선수단 관리가 기대된다.

이정호 감독은 “선수단이 마음껏 훈련할 수 있는 운동장이 만들어진다. 환경적으로 선수들이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이라

며 “광주FC가 선수들이 오고 싶어 하는 팀으로 바뀌는 시작점이다. 내부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고 유스 팀에도 색깔을 입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도 훈련 여건 개선에 힘을 보탤다. 광주시는 현재 기존 천연 잔디 1면과 인조 잔디 1면이었던 축구센터를 천연 잔디 2면으로 재조성하고 조명탑까지 설치하는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오는 1월 착공해 4~5개월이 소요돼 5월 말~6월 초면 활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한규빈 기자